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97
----------	------

발의연월일 : 2024. 8. 16.

발 의 자 : 김승수 · 강선영 · 박성민
권성동 · 조승환 · 서지영
박준태 · 조배숙 · 이인선
구자근 · 강대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이거나 성인인 경우에도 친족관계라는 특성으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공소시효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15년 더 연장되게 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신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말한다)관계일 때에는 공소시효가 15년 연장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시효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 ④ (생 략) <u><신 설></u>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4촌</u> <u>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u> <u>친족을 말한다)관계일 때에는</u> <u>공소시효가 15년 연장된다.</u>